

# 한전KDN, 안전분야 전국 최고 공공기관 입증

공공기관 안전 수준평가 'A등급'  
조직 안전 문화 정착 단계 호평  
기관장 점검 '현장 경영' 상시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안전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한전KDN은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 현장 실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대표 지표다.

특히 단순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실행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전KDN은 올해 A등급 획득으로 단순한 제도 이행을 넘어 '조직 내 안전 문화가 확고히 정착된 단계'라는 전문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한전KDN은 경영진의 '안전 최우선 경영 가치' 의지에 따라 현장 중심의 위험 요인 선제적 제거와 실행력 강화에 집중해 왔으며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를 즉시 개선과 연계하는 실행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CEO의 강력한 안전경영 리더십 ▲경영진 지속 안전품질실 개편을 통한 조직 위상 강화 ▲안전관리자 승진 가점 부여 등 전문 인력 역량 집중 ▲단선 감시 기술 및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꼽혔다.

한전KDN은 기관장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현장 경영' 상시화를 통해 작업 전 위험성 평가 기반의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화재,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아울러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공동체 구축을 통한 원·하청 구분 없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운영,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이어 온 안전 문화 확산 노력, AI와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에너지ICT 전문기업에 특화된 안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전KDN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 보건 투자 및 예산 관리의 체계화 ▲위험성평가 및 법규 관리 시스템 고도화 ▲수급업체(협력사)와의 상생 안전 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보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전체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함께 노력한 성과이기에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 에너지산업의 안전 문화 정착과 에너지ICT 기술력 기반의 디지털 안전 기술을 적극 개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재만 기자



## 광주여성개발센터 '장애여성 취업지원 간담회'

AI 기반 직무교육 확대 등 논의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6일 "전남 '2026년 광주시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를 반영해 교육-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직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 기반 훈련을 통해 장애 여성의 직무 적응력과 고용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무고용 대상 기업체와의 연계 확대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여 기관들은 본 사업과 기업을 적극 연결하여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을 기존 단순 직무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넓혀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장애인지원센터, 광주장애인복지회, 광주장애인복지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장애인복지회, 광주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주장애인복지회, 광주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사업 방향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AI 기반 사무지원, 데이터 활용 등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유사 직무군으로 연계하는 취업

김미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5년간 축적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여성들이 일반 고용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기반 직무교육과 기업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태호 기자

## 콘진원,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3년 연속 우수

디지털 행정 선도기관 위상 강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16일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8일에 열리는 문화정보화협의회 워크숍에서 우수기관 상패와 2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보화 추진 체계와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콘진원은 정보화 전략 수립과 실행,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콘진원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매우우수' 등급으로 상환되며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95.7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우수한 수준을 인정받았다.

특히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인 콘텐츠산업백서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과 이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



유류할증료 폭등에 여행심리 위축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둔 여행업계의 수요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16일 인천공항의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가를 받았다. 콘진원은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전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우수'등급

을 획득하며 정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는 '콘텐츠가치평가 경제성 평가모형 개선 연구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모델링'을 통해 경제성 평가모형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인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정책 추진 전반에 활용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호 기자

## K-컬처 인기...1분기 방한객 476만명 '역대 최대'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

지난달 방한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 이대 한국을 찾는 덕분에 지난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지난달 방한객이 206만명으로 월별 기준 최대 기록도 경신했다.

문체부는 중동 정세의 불안에도 'K-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145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94만명, 대만 54만명 등 주요 방한 시장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대만은 37.7% 증가해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원거리의 관광객도 60만명으로 늘어나 방한 시장 다변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관광 시장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제주·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으로 입항한 크루즈는 항자 기준 모두 338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